

김 용 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운율적(韻律的) 풍경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7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미디어·프린트전공

이 한 철

# 운율적(韻律的) 풍경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용 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미디어·프린트전공

이 한 철

# 인 준 서

이한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운율적(韻律的) 풍경 표현 연구

이  
한  
철

## 논문개요

본 논문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으로서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제작된 본인의 작품들 중 석사학위 청구전 <The illusion>에 발표한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내용적(內容的), 조형적(造形的) 측면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예술작품의 창작은 작가가 한때 경험했던 기억과 인상을 다시금 불러 일으켜 선이나 형태, 색채라는 조형언어를 통해 관람자로 하여 동일한 감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가의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경험과 기억들은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하며 핵심적인 모티프(motif)가 된다. 본인이 태어나 처음으로 맞닥뜨린 세계인 ‘숲’은 친숙하고 그리운 장소이며, 어머니의 자궁 안과도 같이 끊임없이 되돌아가고 싶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곳이다. 또한 숲은 본인의 과거를 형성하고 있기에 나의 출발이요 뿌리이며, ‘나’라는 존재의 실존(實存)에 근원을 확인시켜 주는 곳이다.

본인은 숲이라는 자연 속에서 체험된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기억들을 모티프로 삼아 숲에서 느껴지는 비가시적(非可視的) 느낌의 생명감을 표현하였다.

본인에게 숲의 이미지는 기억의 회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중첩되어 나타나는 형은 생명감의 표현이다. 숲은 내적 고요를 경험하는 곳으로 그 속에서 우리는 휴식의 공간으로 생기있는 기운을 받고 사색을 통한 마음의 안정을 찾

는다. 대기의 흐름 속에 생명감은 무수히 많은 떨림, 움직임, 파동으로 다가오며 감성적 운율로써 느껴진다. 생명성은 비가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숲과 자신의 내면세계의 소통, 즉 감각적(感覺的) 감성의 조화로운 결합으로 느낄 수 있다.

본인은 본 논문을 통해 숲의 이미지가 바뀐 일상으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삶의 회복을 위한 생명감을 느끼게 하고 사색을 통한 인간 본연의 감성을 되찾기를 바라며 본인의 작품세계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의 작업 전개에 도움을 갖고자 한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3
1. 내용적 측면 .....	3
1) 자연으로서의 숲 .....	3
2) 숲의 회복성(回復性) .....	5
3) 잠재된 기억 속 풍경의 회상(回想) .....	9
2. 조형적 측면 .....	11
1) 운율(韻律)로서의 형 .....	11
2) 심미적(審美的) 질료(質料)로서의 색(채(彩)·감(感)) .....	14
3) 비가시적(非可視的) 세계의 표현(表現)으로서의 공간 .....	17
3. 작품설명 .....	20
III. 결론 .....	35

## 참고 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 1> 스리지고 피어나는 ( 60cm × 90cm ) etching, aquatint 2002 .....	20
<작품 2> 스리지고 피어나는 ( 90cm × 60cm ) etching, aquatint 2002 .....	21
<작품 3> The illusion2 ( 60cm × 90cm ) etching, aquatint 2004 .....	22
<작품 4> The illusion ( 90cm × 54cm ) etching, aquatint 2003 .....	25
<작품 5> The illusion ( 60cm × 90cm ) etching, aquatint 2004 .....	26
<작품 6> The illusion ( 15cm × 15cm ) ×4 etching, aquatint 2004 .....	28
<작품 7> The illusion ( 15cm × 15cm ) ×4 etching, aquatint 2004 .....	29
<작품 8> The illusion ( 15cm × 15cm ) ×4 etching, aquatint 2004 .....	29
<작품 9> The illusion ( 21cm × 25cm ) etching, aquatint 2003 .....	31
<작품 10> The illusion ( 40cm × 25cm ) etching, aquatint 2004 .....	33

# I. 서론

예술은 인간의 체험과 감정, 느낌 들을 형태화(形態化) 하는 일이다. 예술은 함축성 있게 완성된 인생의 수많은 체험의 순간들을 재현하고 해석하며 순화하고 그것을 강한 상징으로 만드는 일이다. 이처럼 인간의 내면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의식, 무의식적인 감각의 세계를 표출시킴으로써 예술가들의 개개인 마다의 독특한 개성은 오늘날 새로운 양식으로 창출되고 발전되어 왔다.

오늘날 인간에게 자연이란 무엇인가? 자연이란 개념아래 우리의 생각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왜 자연을 인생의 문제로 삼게 되는지 의문시하게 된다. 기술과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자연이 무참히 파괴되고 우리의 환경이 공해에 찌들게 되어 결국은 나의 건강 및 생명 자체 까지도 위협받게 되었기에 환경보존의 차원에서 자연이 문제시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을 문제 삼고 관심의 중심으로 보는 것은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기술 문명에 깃든 작위성(作爲性), 계산(計算) 등의 인위성(人爲性), 유의성(有意性)에 질려버린 현대인은 오히려 그보다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작위성을 넘어서는 것, 인간보다 절대적으로 큰 것, 무작위성, 무위성 등을 추구하고 그것의 추구가 '자연'을 부르게 하는 것으로 본다. 한마디로 나의 '근원(根源)'을 향한 향수가 '자연'을 부르게 하는 것이다.

본인에게 있어 자연은 오래전부터 무의식 중에 이루어진 관계로 태어나기 이전부터 함께 해왔고 인식하지 못하지만 언제나 마음 속에 새겨져 있는 문신 같은 것이다. 그것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온통 산으로 둘러 싸여 사

시사철 자연과 벗 삼아 지낼 수밖에 없던 곳이기에 그러하다. 기억 속의 자연은 살아있는 생명감으로 가득하며 그 때문일는지 모르지만 숲에 들어서면 느껴지는 시원한 향기, 나무 사이로 부는 스산한 바람소리, 싱그러운 초록색의 잎들과 그사이로 비치는 눈부신 햇살은 오랫동안 자연을 떠나 있는 지금도 생생하며 정겹다. 자연 속에 있음으로 해서, 가령 산에 오르거나 숲에 들어서거나 작은 꽃 한 송이를 대하거나 하면 나는 그 속에서 편안함 외로움 슬픔 등과 같은 감정들이 느껴진다. 이러한 느낌들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 기억된 추억으로 비롯된 것이다. 그 편안함은 어머니의 품과 같이 포근하고 따뜻하며 외로움과 슬픔은 일상에 지친 나를 위로한다. 그리고 마침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힘들고 지친 나의 심신을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평정심을 되찾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제작된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제작 동기와 자연의 풍경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관점을 분석하기 위해 내용과 조형적 측면, 그리고 작품 분석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자연으로서 숲과 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아울러 대기의 흐름으로 인한 비가시적 풍경에서 느껴지는 숲의 생명성(生命性)을 본인의 기억과 흔적이 가지는 남다른 심상을 서술하고자 한다.

조형적 측면에서는 생명감이 느껴지는 움직임의 형을 운율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절제된 색채의 사용이 불러일으키는 효과와 비가시적 이미지 세계의 공간 연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II. 본 론

### 1. 내용적 측면

#### 1) 자연으로서의 숲

자연은 인간에게 생활터전을 주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무한한 대상을 제공한다. 인간의 생은 본래의 터전이 자연이다. 그러기에 인간의 생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한 인간의 미의식 내지 예술 활동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sup>1)</sup>

우리나라는 국토의 7할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진 산악국가다. 선조들이 이 땅에 본격적으로 터 잡아 살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약 8 천년전 이었다. 산이 많고 나무가 울창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수천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산과 숲 자체가 삶의 터전이었다. 그런 까닭에 산과 나무는 우리의 사고 체계에 큰 영향을 끼쳤고 일찍부터 조형의 대상으로 형상화되어 옛 그림이나 회화적 흔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양의 옛 그림은 산수화라고 일컫는다. 그래서 조상들은 예로부터 산과 물을 함께 그려왔다. 즉 산, 물 그리고 나무가 가장 중요한 그림의 요소로 자리 잡았다. 생명력, 풍요, 창조, 관용, 영속성, 강인함으로 상징되는 나무의 의미가 지난 수천년 동안 인류의 가슴 속에 전해 내려와 수많은 문학, 예술에 형상화 되어 나타나고 있다.

---

1) 백기수, 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8 p.8

숲(林)이란 수풀이 줄어서 된 순수한 우리말이다. 사전에는 나무가 무성하게 짙어 들어찬 곳, 또는 풀, 나무, 덩굴이 한데 엉킨 곳을 숲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간에게 숲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지구상에서 태어났을 때 그 앞에는 공포와 경외의 대상으로써 자연(숲)이 있었다. 당시 인간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숲으로부터 어떤 아름다움의 감정이나 미적 향수도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가 전개되고 자연을 인식하게 되면서 서서히 각 분야의 학문적인 기초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자연과 숲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눈뜨게 되었다.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은 철학자들의 사색의 장소로 안성맞춤이었고 대문호와 작곡가, 예술가들의 창작을 위한 구상의 장소로, 종교와 민족 신앙의 태동지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역할은 현대에 들어와 반 자연적이고 스트레스로 가득한 도시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쉬고 새로운 활력을 충전시키는 쉼터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인류는 인구가 과밀한 도시에 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휴양림은 전원생활을 할 수 없는 도시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스트레스를 해소 시키는 소중한 공간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자연을 휴양의 공간으로 인식해 왔기 때문에 자연 휴양의 역사는 깊다고 할 수 있다. 선인들은 자연에서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새 출발의 장소로 생각해 왔다.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내가 한 몸이 되는 ‘물아일체(物我一體)’를 추구했다. 이것은 현대적 의미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만 마음은 편안한 숲에서 자연을 벗 삼아 생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숲이 점차 적어지고 인간의 생활이 도시에 집중되면서 사람들은 숲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유럽을 비롯한 산업국가에서 일찍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많은 도시인들이 주말이나 휴가철에 숲을 찾아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 30년간의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매년 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숲은 녹색이다. 녹색은 자연과 생명과 번영을 상징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연에 대한 이끌림을 갖고 있다. 주위 환경이 열악해 지면 열악해 질수록 인간의 녹색갈증은 커진다. 오늘날 우리나라 매스미디어에서 증가되는 자연 다큐멘터리의 작품수가 증가한 것은 우리의 주변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숲은 우리에게 친숙한 자연이다. 특히 본인에게는 유년시절의 기억으로 인해 더더욱 그러하다. 하늘과 맞닿은 곳이 광활 하게 펼쳐진 수평선이나 지평선이 아닌 울퉁불퉁한 산능선인 곳, 숲이 둘러싸고 안아주는 듯한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본인의 고향(故郷)이다.

고향에 대한 우리의 정서는 각별하고 독특하다. 명절 때마다 도로가 막히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힘든 귀성길이지만 연어의 회귀본능처럼 우리에게 익숙하고 몸에 배어있는 행동습관이다. 본인에게 숲이라는 작품의 소재는 이러한 정서와 관계가 있다.

## 2) 숲의 회복성(回復性)

숲에 대한 기억<sup>2)</sup>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외갓집의 풍경

---

2) '기억'이란 단어는 독립적 범주로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한 영역을 가진다. 학습된 사고, 행동, 의식작용 등 행위만이 아니라 반사작용 심지어 유전인자까지 기억의 영역에 포함된다. 말하자면 오감을 통하여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받아

과 함께 떠오르는 곳이기도 할 테고 다른 이에게는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 거쳐 가는 등산로의 일부이기도 할 것이다. 혹은 심신의 피로를 풀기위해 찾아간 주말여행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숲의 느낌은 대체로 정적이고 고요하다. 그러나 본인의 기억 속에 녹아있는 숲은 ‘시끌벅적’ 하다. ‘시끌벅적하다’라는 말은 소음과 같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나무들이 끊임없이 물을 끌어 올리고 햇볕을 받으며 성장하는 소리, 낙엽 밑에서 싹을 틔우는 소리 등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활기찬 느낌의 소리이다. 그 소리는 사람의 맥박과도 같은 생명의 소리로서 우리는 숲에서 삶의 맥박을 느낄 수 있다. 이때의 소리는 청각에만 의존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감(五感)을 통해 느껴진다. 오감을 통해 들어온 생명의 기운은 본인의 몸속에 불순한 것들을 걸러내고 맑은 정신으로 평온한 상태에 이르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숲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은 이러한 생명의 기운으로 인한 것이다.

생명감이 가득한 숲은 그 모습에서도 그러하다. 숲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한다. 숲의 색은 계절에 따라 연두색, 초록색, 주황색, 회색 등으로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있겠지만 그 색들은 ‘마크 로스코(Mark Rothko, 1903~1970)’의 색면그림과 같이 빨려들 것 같은 무한한 깊이와 폭넓은 색채와 색조를 보여준다. 바람이라도 불면 풍부한 색감은 곧 커다란 일렁임으로 변한다. 개체가 아닌 숲 전체가 바다와 같은 하나의 움직이는 색채 덩어리로 보이는 것이다.

---

들이는 모든 각인이나 흔적을 망라하며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의 경험 전체가 기억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최 민, 기억과 망각, 문화 과학, 2000, p.205

해가 지고 숲이 어두워져도 생명의 소리는 멈추어지지 않는다. 어둠속에서도 숲은 생명감이 가득하다. 또한 밤의 숲은 더욱 깊은 공간감을 보인다. 어둠 속에서 하늘과 숲은 별들로서만 구분된다. 반짝이는 곳은 하늘이요, 검은 실루엣으로 남은 곳은 숲이다. 달이 뜨면 하늘은 환해지고 경계한 숲은 더욱 짙게 나타나며 그 짙은 어둠은 바다의 깊은 심해처럼 끝을 알 수 없는 검정이 된다. 검정은 심연의 색이다. 모든 깊은 것들, 너무 깊어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것들의 색이다. 깊은 물속이 그러하고 깊은 땅속이 그러하며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의 하늘이 그러하다. 끝없이 깊은 것들은 사람을 사색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사람은 사색을 통해 숙연해지고 차분해지며 평온한 마음의 안정을 갖게 된다.

작년 초가을 시골 선산의 선조들의 묘를 별초하고 내려오는 길에 어릴 적에 많이 찾았던 숲길을 내려오다가 소나무 들이 옹기종기 자라고 있는 한적한 장소를 만났다. 소나무들로 둘러싸인 그 장소는 우선 조용했다. 가끔 솔숲을 지나는 바람소리나 새소리가 들렸다. 땀도 식힐 겸해서 솔가리위에 다리를 펴고 꽤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아무런 행위 없이 우두커니 앉아 있는 기분은 참으로 묘했다. 읽어야 할 책도, 만나야 할 사람도, 해야 할 이야기도, 봐야 할 뉴스도, 들어야 할 음악도 없이 그저 자연 속에 자신을 놓아두었을 때 느끼는 그 자유로움, 그 한적함, 그 편안함을 어떻게 표현할까?

숲에서 갖는 이런 침묵은 우리의 자아를 되살려 낸다. 침묵하는 일은 내적인 고요를 경험하는 길로써 잊고 지내던 자신을 만나는 것이다. 사람은 흔히 혼자서 걸을 때,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한다.

이러한 침묵 속에서도 자연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인식

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늘, 자연의 미세한 움직임 내의 정중동(靜中動)에 있다. ‘움직인다’는 말은 살아 숨 쉬는 것이다. 그것은 빛과 공기의 흐름, 즉 대기와 만나는 자연을 바라봄으로써 느낄 수 있다. 숲의 부분을 클로즈 업해보면 실제 자연은 고정된 형이 아님을 알게 된다. 비가시적 공간에서 식물은 생명의 기운을 무수한 움직임의 파장으로 내보낸다. 이러한 생기 있는 파장이 사람들로 하여금 숲으로 이끌리게 하는 것이다.

미술의 본질은 비가시적 이미지, 즉 오감에서 느끼는 느낌을 이미지화 하는 것이다. 인간은 무수히 자연의 느낌을 표현해 왔다. 특히 인상파는 사물의 색을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빛의 움직임에 따른 색의 가장 순수하고 강렬한 영향을 보여 주었다. 프리즘이 햇빛을 무지개 색으로 분리하듯이 그들은 하얀 햇빛을 색색의 무수한 점으로 해체 시켰고 그 결과 빛이 쏟아져 내리는 인상을 만들었다. 그것은 대체로 빛의 진동에 따른 서정적인 느낌만을 보여 주었다. 본인이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대기의 움직임을 통한 자연의 생명감이다. 이는 투명한 대기의 분위기, 흐르는 듯한 공기를 표현했던 ‘카미유 코로(Jean-Baptiste Camille Corot, 1796-1875)’의 감수성과 맥을 같이 한다. 카미유 코로의 작품 <모르트폰텐의 추억(1864)>은 슬쩍 칠한 듯한 붓터치로 바람, 대기의 움직임을 표현했다. 미풍 속의 바람의 느낌은 가벼운 붓놀림 속에서 아련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본인은 생명감이 내포된 울림의 감수성으로 대기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싶었다. 대기 속에서 색조는 미묘하게 변화하고 풍경은 아련한 뉘앙스로 나타난다.

집안과 밖의 식물은 서로 같은 생명체 임에도 다른 느낌을 준다. 집안의 화초에서는 생명감을 느끼기 힘들다. 요지부동의 자세다. 그러나 밖의 식물은

때로는 걱정적으로 출렁이기도 하고 작은 움직임으로 파르르 떨리기도 한다. 비로소 대기에 있을 때 생명체로서의 충만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대기는 무색, 무취, 무형으로 그 자체만을 표현 할 수는 없다. 대기가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으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진다. 설령 시각적이나 촉각적으로 느낄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진동은 파장으로 느껴지고 리듬으로 나타나며 운율로서 느껴진다. 이러한 감각적 경험은 자연을 경이롭게 하고 대기의 생명감을 보여준다. 생명감을 느끼는 것, 실제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자연과의 내밀한 교감을 통한 인간 내면의 회복성이다.

### 3) 잠재된 기억 속 풍경의 회상(回想)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존재해 왔으며 인간은 그 시간 속에서 많은 체험을 하고 기억한다. 누구나 자기가 자라온 환경이나 주위 풍경, 겪게 된 어떤 일 등의 과거 경험으로 이루어진 기억들을 갖고 있다. 그 기억들은 항상 떠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내면에 자리하고 있어 무의식 중에 현재의 삶과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떤 순간에 문득 문득 떠올라 향수에 젖기도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사로운 기억들은 잊혀지고 남아있는 기억들은 강하게 각인된 기억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아로 새겨지고 더 많은 향수에 젖게 한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자 인간 생활과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은 예술 활동에 있어서 무한한 소재를 제공해 왔다. 예술가들은 자연을 대상으로 체험한 감동, 미의식 등을 예술로 창출해 내어 자신의 정서와 생각 등을 표현하였다. 자연을 아무리 있는 그대로 재

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이 본질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으로 재해석되어 새롭게 창조되어진다.

누구든 한 두 번은 풍경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감동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산 능성이 끝간데 없이 겹쳐지면서 깊고 멀리 이어지는 풍경일수도 있고 또 잔잔한 호수 저 너머에 우뚝 솟은 산이 물에 비친 제 그림자를 바라보는 듯이 서 있는 광경일 수도 있다. 심지어 길가에 핀 작은 꽃과 같이 생활 환경에서 만나는 사소한 풍경에서 가슴 저미는 아름다움을 맛보기도 한다. 이러한 풍경의 미적체험은 개인의 감수성에 크게 의존한다. 풍경은 지금의 자기와 눈앞의 세계가 만날 때 태어나는 것으로써 자연과의 감응은 나와 자연이 딴 몸이 아니라 자각(自覺)에서 시작한다.

기억은 회상, 추억과 같은 행위에 연관되어 있다. 종종 우리는 과거의 어떤 순간을 떠올리며 깊은 상념(想念)에 잠기곤 한다. 그 상념 속에 스며들어 있는 고요함은 그림처럼 떠오르는 기억 속의 풍경과 섞여 들어가며 시 공간을 뛰어 넘는 심상을 만들어 낸다. 본인의 기억 속 유년시절을 떠올려 본다. 창호지로 바른 격자문 손잡이 옆 마른 코스모스가 창호지 사이에 붙어 있다. 바람이 불고 창호지는 파르르 떨리고 마른 꽃은 춤을 춘다. 생명이 없던 꽃이 살아난다.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화단의 꽃들이 가득하다. 신장로 까지 이어진 양쪽 길가엔 코스모스가 한 가득이다. 길인지 꽃밭인지 가늠 할 수가 없다. 멀리 신장로를 바라보면 커다란 미루나무가 작은 잎들을 반짝거리며 흔들고 있다. 작은 점들로 이루어진 잎들은 온화하고 밝은 색채와 영롱하기조차 한 빛과 바람의 떨림이다. 언덕에 오른다. 시원한 바람을 느낀다. 언덕아래 호수를 건너온 바람에서 호수의 향기를 맡는다. 호수를 바라본다. 호수 또한

생명의 움직임으로 출렁거린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풍경은 길이 기억하고픈 추억 중의 하나이다. 그 풍경을 기억하려는 욕구, 그리고 과거로부터 시간을 역추적 하는 깊은 상념을 관조하려는 본인이 욕망으로 인해 작품은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사람은 개개인마다 다른 추억을 갖고 있다. 그러나 회상을 통한 느낌은 비슷하다고 본다. 추억하고 회상한다는 것은 과거의 것을 떠올리는 것으로 그리움이나 애뜻함 같은 느낌을 내포하고 있다. 본인의 작품을 통해 그러한 감정들을 공감하고 소통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2. 조형적 측면

### 1) 운율(韻律)로서의 형

형이란 대상을 관찰하는 순간 눈에 와서 닿는 자극만이 아닌 그 이상의 것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순간의 경험은 결코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순간의 경험이란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생애동안에 있었던 무수한 감각경험(sensory) 가운데에서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 새 이미지는 과거에 지각되었던 형에 대한 기억의 흔적들과 더불어 들어온다. 이러한 형의 흔적들은 상호간의 유사성의 기반 위에서 서로 마주치는데, 새 이미지는 이러

한 영향에서 탈피하지 못한다.<sup>3)</sup>

인간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많은 일을 경험하며 순환적인 삶을 보낸다. 다양한 경험이 있는 생활 속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연의 변화에서 보여 지는 물상들, 그것들과 함께 한 자신의 경험을 글이나 음악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본인이 그려내는 숲 이미지의 풍경은 기억 속에 축적된 과거 경험에 기인한다. 기억속의 숲은 거대한 우주이자 생명공간이며 대기의 움직임으로 여러 생명체들이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곳으로 신비롭고 아득하다. 어머니의 품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고 감싸주는 안락함이 가득한 곳이다.

본인은 내면 깊숙이 가라앉아 있기도 하고 무어라 뚜렷이 표현할 수 없는 형상화(形象化)되지 못한 심상(心象)들을 화면에 부유하고 형상에서 흘러나와 보이는 유동적인 이미지로 기억의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본인이 떠올린 것은 풍경이지만 나타내고자 한 것이 풍경은 아니다. 사생이 아니라 기억속의 회상 즉, 단순히 일찍이 보았던 것의 회상이 아니라 원형적 풍경으로 정착한 감정의 회상으로 그 옛날 느꼈던 숲의 느낌, 편안함, 안락함 생명감 같은 감정들을 표현하고 싶었다. 이런 감정들은 무형의 느낌으로써 직접적인 표현방법이 없으므로 숲의 분위기를 빌어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렇기에 숲 ‘풍경이다’라는 말보다는 ‘풍경스럽다’라는 말이 더 맞을 것이다.

대기의 흐름으로 인한 생명감 있는 이미지의 표현은 실물전사 기법을 이용하여 나타나는데 실물전사와 다양한 톤의 변주를 통해 자연스러운 형과 면을 획득하였다. 실물전사는 니들로 판에 직접 그려 넣는 방법보다 자연스러운 선

---

3) 루돌프 아르하임,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미진사, 1996, p.54

과 느낌을 얻을 수 있다. 실물전사는 사진전사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며 인위적, 우연적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스프레이 입자의 조절, 뿌려지는 각도, 판(版)과 올려진 대상과의 밀착정도 등등에 따라 이미지 자체를 명확하게 혹은 불분명하게 나타낸다. 판위에 어떤 대상을 놓고 스프레이를 뿌려 거두어진 상은 대상의 그림자와 같은 방법으로 판위에 남게 되고 판위에 전사된 상은 원래 대상이 가지고 있었던 즉물적 성격을 해체하고 경우에 따라 몽환적이며 시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후 이미지는 약한 부식을 통해 판위에 희미한 형상으로 남는다. 이러한 작업과정의 반복으로 인해 처음 이미지는 사라지고 여러 이미지의 중첩으로 전혀 다른 이미지가 나타나며 이것은 처음의 구상적 성격에서 벗어나 추상적인 모습을 띄게 된다. 중첩으로 나타나는 강중약이 혼재된 톤의 형성은 바람, 대기의 흐름, 빛의 흐름을 표현하고자 함이다. 이미지의 중첩은 움직임의 나타내고자 하는 운율적 표현이다. 이때의 운율은 시조와 같은 외형율적 운율이 아닌 일정한 형태적 구속에서 벗어난 자유시의 내재율에 가깝다. 생명감은 움직임으로, 파장으로 감각되고 이는 다시 리듬, 울림으로 인식되며 운율로써 표현되고 일루전(Illusion)으로 나타난다. 일루전이라 함은 본래는 실재하지 않는 형상을 마치 실재 하는 것처럼 지각하는 작용 및 그 형상을 일컫는다. 생명감의 운율적 표현은 비가시적 세계를 시각화 하는 공감각적(共感覺的) 표현으로 바로 일루전인 것이다.

본인이 그려낸 이미지는 구체성을 암시하고자 하는 형태의 추상적 이미지로 작품에서 어떤 형상을 본다면 그것은 사람이 주어진 감각적 자료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적절한 증표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을 실제 세계의 일부로서 보려는 본능 때문일 것이다. 그림은 색채와 일정한 윤곽을 그리는

선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 사람은 이러한 것들에서 실제적인 사물을 읽어내려는 강박적 성향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을 볼 때에 2차원의 화면에 나열된 것들을 3차원으로 읽어내는 것은 그러한 성향 중에도 두드러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시각체험은 일정하게 조직화 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질서를 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질서는 다른 사물의 세계를 향한다. 시각체험은 감각적 인상의 중성적인 배분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시각의 장에서 폐쇄된 형체는 바탕과 대조를 이루면서 물체처럼 떠올라 온다.

그림의 색채와 선들이 현실의 사물들을 전혀 환기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의미는 그 현실 세계와의 연속성에서 돌출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림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감각적인 경험으로 존재하고 이 경험은 현실세계에 대한 우리의 감각적인 경험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니 만큼 그것은 감각의 세계 내적인 의미를 벗어날 수 없다. 물론 그것은 분명하게 사실이나 행동으로 결과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감정적 환기, 즉 분위기나 느낌의 환기에 관계될 수 있다.

## 2) 심미적(審美的) 질료(質料)로서의 색(彩)·감(感)

조형적인 형상은 바깥의 외곽을 한정짓는 색상과 명암의 변화와 둘러싸는 선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각적인 지각영역이다.

본인의 풍경 이미지는 무채색에 의해 한정되어 있다. 꿈은 비가시적 세계로 무색이다. 대기 또한 비가시적 세계로써 색이 없다. 작품에 나타난 무채색의

검정은 본인의 무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기억에 대한 심연의 색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퇴색되고 빛이 바랜 과거 기억들을 사색적으로 표현 하고자 함이다. 본인이 표현하는 생명감은 숲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곧 대기의 흐름을 말한다. 무채색의 미세한 톤의 형성은 대기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검정색이 영원한 침묵과 같은 울림을 지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침묵 속에 모든 울림을 다 내포하고 있다는 말도 된다.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가 말했듯이 검정색의 힘은 겉으로는 아무색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 무한한 깊이와 무수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는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 검정색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공허인 것이다.

검정색은 죽음과 슬픔 같은 존재의 우울을 나타내는 색이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출발과 탄생을 예비하고 있는 색이다. 하나가 죽고 또 다른 하나가 태어나는 것은 모든 변화하는 것이 거쳐야 할 과정이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다. 한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다른 모습을 얻는 것이다. 검정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변화하는 존재가 거쳐야 할 상징적인 죽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즉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고 다른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인의 작품에 나타난 무채색은 수없이 많은 미세한 톤의 변화를 보인다. 이 무채색은 농담에 의해 깊이를 가지며 다양한 색의 단계를 보여준다. 농담 표현은 약한 면부식의 반복에 의한 중첩과 aquatint의 단계부식, 잉크와 오일의 사용을 달리함으로써 나타난다. 이미지는 무채색이 가지고 있는 은은하며

무한한 감정색조의 변화로 나타나며 다양한 식물들이 지닌 서로 다른 형태의 중첩으로 일종의 음악적 조화와 울림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는 과거, 현재의 공간에 잠재되어 있는 본인의 기억에 대한 것으로 생명감을 내포한 서정적 분위기를 자아내고자 함이다.

형상외의 여백은 옥색 혹은 녹색계열의 아주 연한 소색으로 표현 되었다.

오래전 한국인은 흰옷을 즐겨 입었으며 흰색을 좋아했다. 이때의 흰색은 색이 없는 무색이 아니라 자연의 바탕색인 소색이라는 것이다. 소색이란 바탕소(素)에 색 색(色), 옥양목이나 비단, 광목의 색처럼 재질에 따라 다양한 뉘앙스의 색감을 드러내는 자연의 바탕색이다. 즉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색을 뜻한다. 구부러진 나무를 고스란히 대들보로 사용한다든지 굽기가 고르지 않은 나무를 활용하여 배흘림 효과를 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자연적인 것’ 그대로를 ‘인문적인 것’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흡사하다. 인공적으로 가공되어 눈부시게 하얀 흰색과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빛을 흡수하는 듯한 은은한 빛깔이다.

본인의 작품 속에 표현된 소색은 은은하고 투명하면서도 깊은 맛을 지닌, 미묘한 뉘앙스의 매력이 있는 천연 그대로의 색이다. 이러한 소색은 ‘친콜레 (Chin colle)’ 기법을 통해 나타난다. 친콜레 기법은 잉킹된 판 위에 천이나 종이 등을 올려서 찍는 방법으로 잉크와 함께 종이에 새겨진다. 본인은 이때 소색의 한지를 이용하여 희미하고 은은한 자연의 색감과 한지 자체에 있는 결의 느낌을 얻었다. 이로 인해 작품의 형상은 새벽녘 달빛으로 인해 창호에 어른거리는 그림자와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오래된 한 폭의 동양화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색이라는 것은 미의식을 상징하는 ‘기억 속의 심상’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본인은 무채색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깊이와 자연의 바탕색으로 은은한 소색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생명성이 내포된 이미지를 통해 본인의 기억 속 풍경의 감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 3) 비가시적(非可視的) 세계의 표현(表現)으로서의 공간

화면에 그려진 하나의 선은 평면 안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또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공간은 그 선 아래로 차단 없는 흐름을 계속한다. 이렇게, 화면의 선이 분리되어 보이는 것은 시지각의 경제성, 계속성의 원리에 따라 지각되기 때문이다. 이는 표면 패턴이 단순 구조를 가질 때 2차원적이기 보다는 좀 더 3차원적으로 보이게 되는 원리이다.<sup>4)</sup>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망막에 투영된 대상의 이미지 중 재질감이 강한 대상은 형상이 되고 가깝게 느껴지며 반면에 재질감이 약한 것은 배경이 되려하고 멀게 느껴진다. 또, 크기의 크고 작음, 명암대비의 가하고 약함, 색채의 선명도 등등에 따라 우리의 시지각은 대상을 형상과 배경, 즉 주(主), 객(客)으로 나누게 된다. 이 또한 실제 세계의 일부로 보려는 본능일진대, 이로 인해 사물은 있는 그 자체로 공간감을 가진다.

본인의 작품은 원근법적 시각으로 볼 때 중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대기원근법에 근거한 동양화의 특징과 같은 맥락으로 강한 톤의 근경과 희미한 여러 이미지의 중첩으로 인한 원경, 그리고 여백만이 존재한다. 회상을 통한 자연의 재생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 동양화에서 기억 속에 회상하는 산수를

---

4) 루돌프 아르하임,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미진사, 1996, p.221

창조함에는 원근법이라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중경의 부재는 무한 공간적 확산을 보여주는 동양화의 여백처럼 근경과 원경사이 상상력에 의한 더 깊고 아득한 공간 연출에 목적이 있다. 원경은 여백에 묻히듯이 희미한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동양화의 선염법처럼 아주 희미한 이미지로 존재하며 이는 약산의 부식을 통해 나타난 이미지로 아지랑이처럼 무언가 꿈틀대듯이 느껴지기도 한다. 원경의 이미지는 이질적이 될 수도 있는 흑과 백, 근경과 여백의 사이에서 끊어질 수 있는 시선을 이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공간은 울림, 파장을 느끼게 하는 정중동의 공간으로 주관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며 평면적이고 단순화되기 쉬운 여백을 더욱 밀도 있는 공간으로 이끌고자 하였다.

빛의 공간, 즉 ‘비어있는 공간’, ‘공허함’을 동양예술에서는 여백이라 한다. 동양화에서의 여백은 화면에서 표현된 형체 외에 비어있는 공간을 말한다. 여백은 화면에서 아무 것도 그려져 있지 않지만 의미 있는 공간으로 존재함으로써 화가의 정신적 깊이를 드러내 주며, 잘 처리된 여백은 어떠한 회화적인 표현보다도 더 웅변적으로 간주되었다.<sup>5)</sup>

여백이란 화면상 빛이 가지 않고 비어 있으면서 무언가 여운이 감도는 공백의 부분, 즉 공간을 말한다. 끝없는 무한한 호흡, 작품이 무한성을 띠게 되는 것은 여백으로서의 공간의 힘이다. 그린 부분과 그리지 않은 부분, 만든 것과 만들어 지지 않은 것, 내부와 외부가 자극적인 관계로 서로 작용하고 울려 퍼질 때, 그 공간에서 초월성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려져 있지 않은 공백과 그려진 흔적과의 관계에 의해 생기와 무한감이 넘쳐난다. 이 상호관계에 의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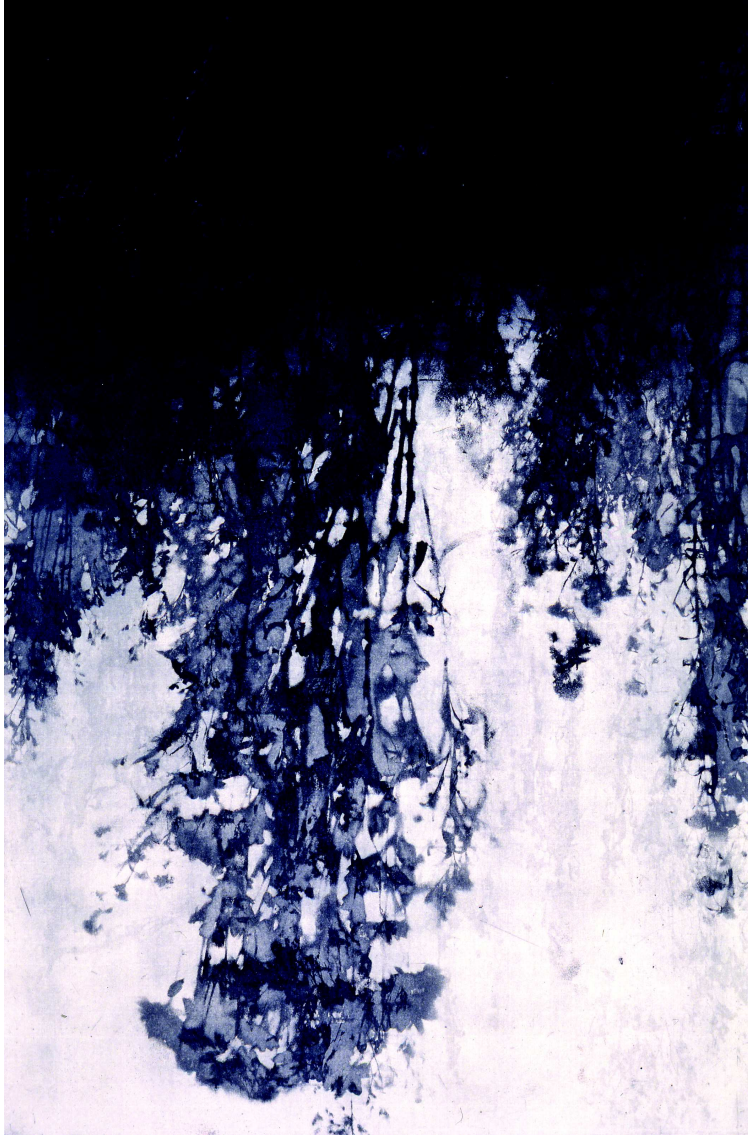
5) 김인환, 동양 예술론, 안그래픽스, 2003, p.194

여백 현상이 우주적인 것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순수하고 신선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술작품에 있어서의 여백이란 자기와 타자와의 만남에 의해 열리는 양양된 공간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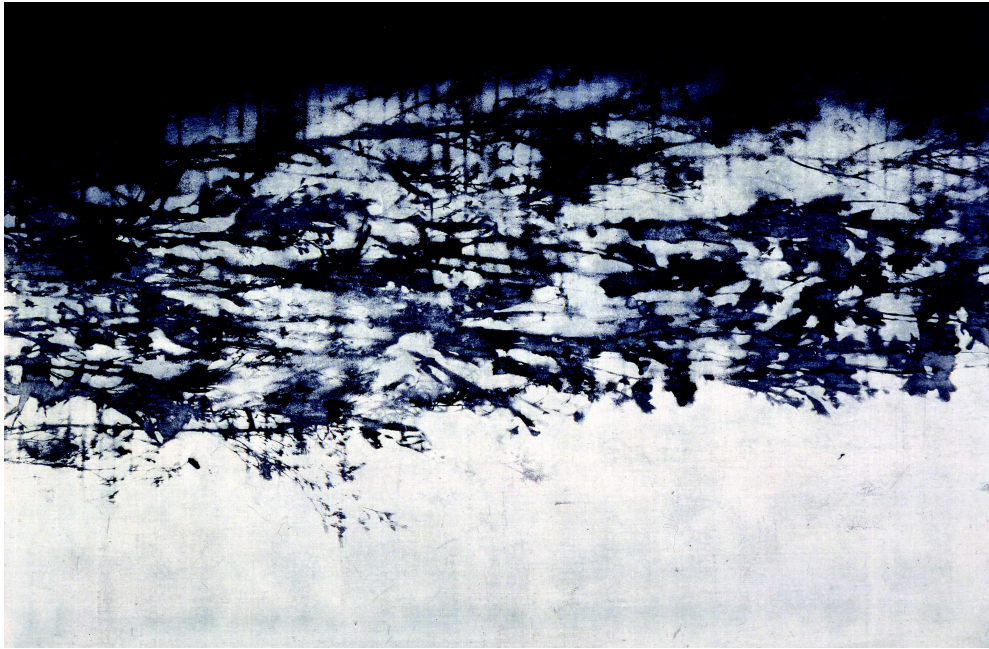
여백이 주는 의미는 주제를 더욱 두드러지게 보이면서 화면의 깊이를 고취시켜 주는 역할이다. 아득히 깊이를 느끼게 하는 여백은 동양화를 정신적, 명상적 분위기로 이끄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묘사된 형태가 잘 나타나게 하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킬 수 있다.

본인의 작품에 나타나는 여백은 깊이 있는 여운과 암시적인 공간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것은 여백을 통해 사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무한함을 느끼게 하는 동양 회화의 정신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종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지 않은 것을 취함으로써 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또한 생성을 의미한다. 즉 여백의 처리는 보다 많은 상상의 세계를 낳고 상징적이며 함축적인 시간적 표현기술이 되기도 하며 결국 감상자로 하여금 여백은 완성이 아닌 시발점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 3. 작품설명



<작품 1> 스러지고 피어나는 60cm×90cm etching, aquatint 2002



<작품 2> 스러지고 피어나는 90cm×60cm etching, aquatint 2002



<작품 3> The illusion 60cm×90cm etching, aquatint 2004

【작품 1, 2, 3】 스러지고 피어나는, The illusion

어린 시절의 고향은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깊은 계곡 또한 함께 존재했다. 산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 시작된 계곡은 아주 맑고 깨끗한 시냇물을 끊임없이 흘러보냈다. 시냇물은 바위를 타고 흐르기도 했고 자갈로 이루어진 작은 웅덩이에 고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작품 【작품 1, 2, 3】 은 시냇물에 비친 숲의 기억을 형상화 한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작품 1】 은 시냇물이 멈추어진, 고여 있는 웅덩이에 비친 숲을 표현한 것인데 물의 표면에서 조차도 어떤 미동도 느낄 수 없는, 바람한 점 없는 날의 기억이다. 시각적으로 어떤 움직임이나 생명감이 포착되지 않는, 온몸의 감각으로 나 자신이 자연의 정중동(靜中動)에 있음을 느꼈던 기억에 기인한 공감각적 표현이다. 실물전사기법으로 판 위에 전사된 이미지는 약산의 부식을 통해 희미한 톤의 형상으로 남게 된다. 작업과정의 반복으로 겹쳐지는 면도 생겨나고 처음 한번만 부식된 면도 남기도 하면서 미세한 톤의 변화를 보여준다. 밝은부분의 희미한 이미지는 이와같은 방법을 통해 나타난 것이다.

【작품 2】 는 흐르는 물에 비친 숲을 표현했다. ‘흐르는 물’과 ‘물결친다’라는 말은 ‘움직인다’라는 성격으로 애매한 차이를 보이지만 ‘흐른다’는 것의 방향성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흐른다’는 것은 좌에서 우로, 혹은 우에서 좌로의 방향성을 갖는다. 작품에서 나타나는 세로 선은 식물을 전사할 때 밀착했던 기구의 형으로 우연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세로로 나타난 선은 ‘흐른다’라는 단순해 질수 있는 방향성에 변화를 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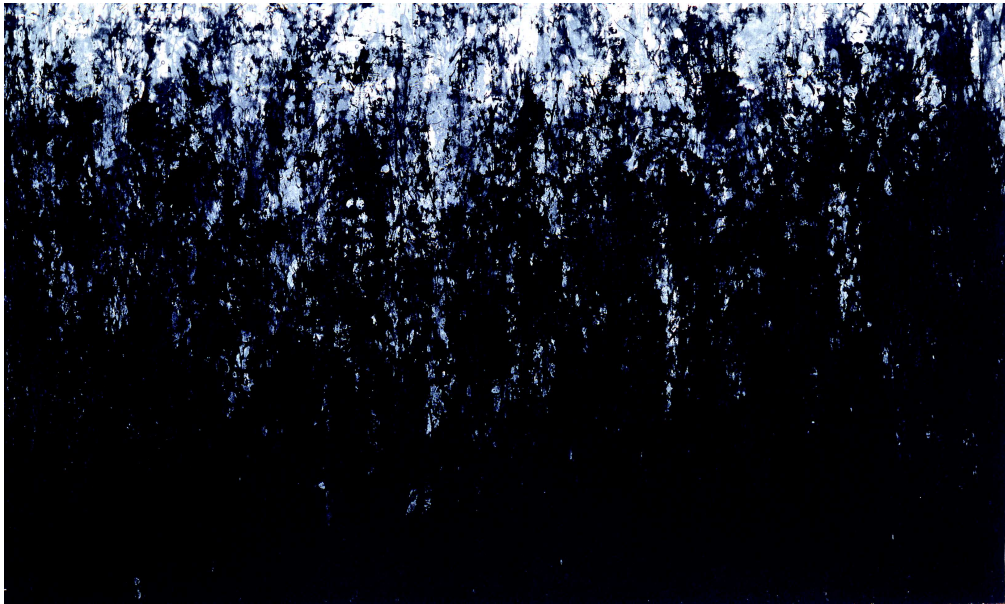
더 많은 움직임이 보일 수 있기에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물의 흐름과 숲의 흔들림이 이중으로 겹쳐진 듯 한 느낌을 받는다.

친콜레 기법은 쓰이는 재료에 따라 다양한 표현을 보여준다. 본인의 경우 한지를 사용함으로써 은은한 색감과 한지의 결을 얻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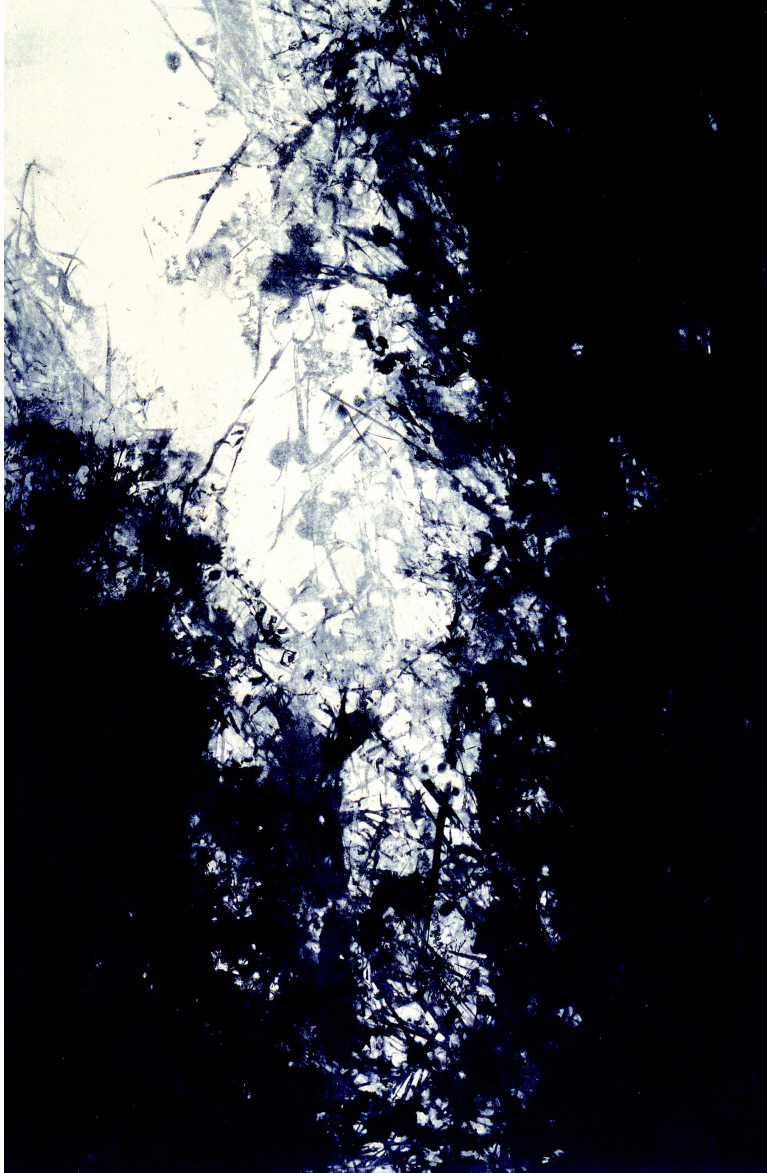
【작품 3】은 세 작품 중 움직임에 초점을 두어 대기의 흐름, 즉 바람이 불어 시냇물도 물결치고 숲도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앞의 두 작품보다 활기찬 느낌을 표현 하고자 했다. 물결의 표현 또한 실물 전사기법을 사용하였는데 평소보다 면을 더 잘게 분할하고 더 많은 부식 단계를 거쳐 나타난 이미지의 표현은 두 작품보다 다양한 톤의 변화를 보여준다. 친콜레 기법의 사용은 색감과 재료의 결을 얻을 수 있으나 극도의 미세한 톤은 색감과 결에 못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친콜레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색감과 한지의 결은 얻을 수 없었으나 극도의 미세한 톤까지 보여주어 앞의 두 작품 보다 다양한 톤의 형성을 이루고자 하였다.

【작품 1, 2】의 ‘스러지고 피어나는’이란 제목은 사라졌다 나타남을 반복한다는 의미로 생명성을 지닌 공감각적 경험을 시각화 시키는 본인의 작품제목이기도 한 일루전의 다른 표현법이다.

【작품 1, 2, 3】의 상단부분은 무채색의 짙은 검정이 자리한다. 이는 무겁고 단단하게 느껴지는 느낌의 검정을 화면의 상단부에 위치시킴으로써 긴장감을 갖도록 유도한 것이다. 그리하여 검정에서 느껴지는 무한한 깊이와 깊이의 무한성에서 오는 사색적 감성이 긴장감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도를 갖고 표현 하였다.



<작품 4> The illusion 90cm×54cm etching, aquatint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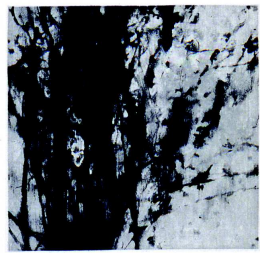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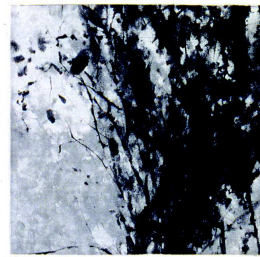


<작품 5> The illusion 60cm×90cm etching, aquatint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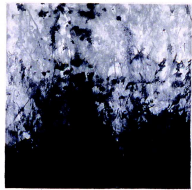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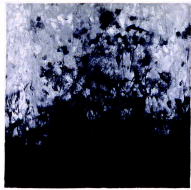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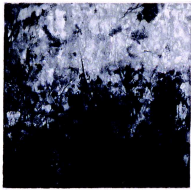
## 【작품 4, 5】 The illusion

【작품 4,5】는 숲 속에서 바라본 풍경으로 본인의 시선과 태양 사이에 숲이 위치한 모습이다. 숲 속에 있다는 것은 ‘안’에 존재 하는 것, 즉 숲과 하나됨에 있어서 생명의 울림을 더 가깝게 느끼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동 방식이다. 이때 오감을 통해 들어온 생명감은 극대화 된다. ‘밖’에서 바라보면서 느낄 수 없었던 후각, 미각, 청각, 촉각 등이 살아나고 예민한 반응도 감지한다. 특히 시각적 느낌은 탁월하다. 나무의 잎과 가지들은 대기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며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가운데 무수히 많은 색채를 보내고 아주 작은 흔들림 까지도 감지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둠 속에서 밝은 곳을 바라 볼 때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뚜렷이 인지 할 수 있는 시각적 특성 때문일 것이다. 태양, 나무, 본인의 위치에 따라 시선은 나무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게 되고 대기에 의한 잎의 흔들거리는 과정에서 햇빛은 더욱 강하고 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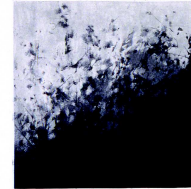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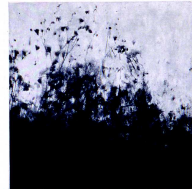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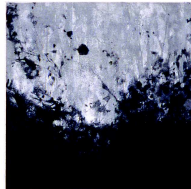
【작품 4,5】에서는 무채색의 검정이 화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층부식(deep etching)과 aquatint 기법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요철을 다양화 시켜 생겨지는 마티에르로 인하여 검정에서 올 수 있는 단순성에 변화를 주기 위한 노력이다. 이때의 검정은 아무것도 없음, 비어 있음의 상태로 나타난다. 그 비어있는 상태에서 현재의 정체성을 잠시 접겠다는 의미,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본원적인 것, 근본적인 것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갖겠다는 뜻이다. 일종의 쉽표와 같은 역할로써 검정은 한 발 뒤로 물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현실로부터 숨을 한번 돌리게 만드는, 그리고 천천히 돌아보게 만드는 사색의 색으로 표현 되었다.



<작품 6> The illusion (15cm×15cm) ×4 etching, aquatint 2004



<작품 7> The illusion (15cm×15cm) ×4 etching, aquatint 2004



<작품 8> The illusion (15cm×15cm) ×4 etching, aquatint 2004

【작품 6, 7, 8】 The illusion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에게는 좀 낯선 풍경이겠지만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집의 문들은 창호지가 발라진 격자문이었다. 이 격자문의 손잡이 옆에는 책속에 고이 말려 놓았던 꽃들을 함께 붙여 장식하곤 했는데 이로 인해 문자체가 하나의 작품으로 느껴지곤 했다.

【작품 6, 7, 8】은 격자문에 대한 기억이다. 바람이 불면 창호지가 떨리고 붙여진 마른 꽃들은 생명이 있는 듯 움직인다. 또한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어슴프레 동이 떠오르는 새벽의 문은 은은한 빛깔의 창호지 위에 꽃이 검은 실루엣으로 들어나 고요하고 몽환적으로 나타나며 한 낮에는 강렬한 빛으로 인해 꽃은 본래 색을 내비쳐 회화 작품이 되기도 하는가 하면 노을이 지는 저녁에는 불타는 듯 붉은 바탕에 검은 형상으로 나타나 정열적인 분위기를 보이기도 한다. 밤이 되고 모든 것이 잠들었을 시간, 바람의 소리도, 감촉도 느낄 수 없는 정적 속에서 달빛에 의한 숲의 그림자가 문에 어린다. 아지랑이처럼 아른 거리는 숲의 그림자는 마른 꽃의 형상과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한다.

【작품 6, 7, 8】은 각각 4개의 프레임을 갖고 나타나는데 이는 문의 격자문 너에 근거한 표현으로 본인만의 구도로 재구성해 보았다. 4개의 프레임은 독립된 개체로 보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형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통일감 속에 변화를 주기위한 시도로서 4개의 화면을 개별적으로 작업하고 검정의 흐름을 이어지게 하여 표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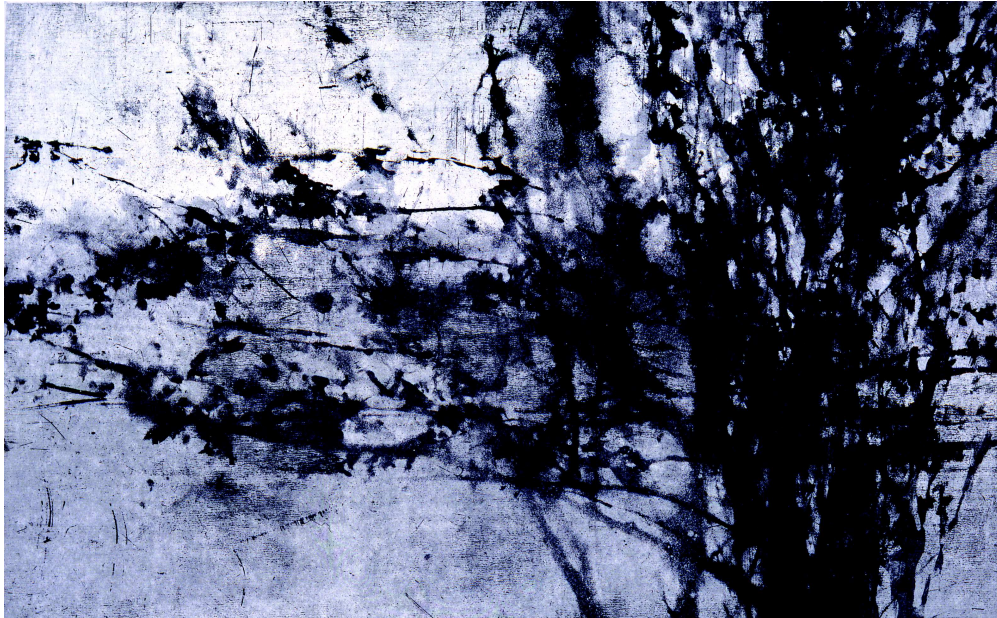


<작품 9> The illusion 21cm×25cm etching, aquatint 2003

【작품 9】 The illusion

깊은 밤 고요하고 정적만이 감도는 풍경이다. 하늘은 둥근 보름달로 환하고 달빛 속에서 소리 없이 별들만 반짝인다. 구름 한 점 없다. 달빛아래 검은 실루엣은 시인, 철학자 인 듯 보이고 사색에 잠긴 듯 하다. 소리 없는 울림이 달빛을 타고 퍼져온다.

이 작품은 다른 작품들에 비해 기법과 이미지를 최대한 절제하여 표현했다. 톤의 변화는 2단계나 3단계정도로 밖에 보여 지지 않지만 감성적 느낌은 풍부하다고 본다. 스프레이 입자로 인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된 외곽은 몽환적 분위기를 더해준다. 화면 왼쪽의 검정 실루엣의 그림자 혹은 뒤편에 위치한 듯 한 옅은 톤의 이미지는 생명성을 내포한 내적 움직임의 표현으로 미세한 비가시적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함이다. 여백의 중앙에 보이는 아지랑이 같은 여릿한 이미지는 검은 실루엣과 여백을 이어 줌으로 해서 사물과 공간이 서로 호응하여 조화를 꾀하는 동시에 상상의 여지를 남기는 근거로 여백이 그냥 공백이 아니라 여운이 감도는 사유할 수 있는 무한한 공간으로 느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작품 10> The illusion 40cm×25cm etching, aquatint 2004

【작품 10】 The illusion

우리는 흑백영화를 감상할 때 화면과 함께 나타나는 스크래치를 볼 수 있다. 이때의 스크래치는 감독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필름 자체가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 시간성이 묻어 있는 흔적이다. 이러한 시간성의 흔적과 흑과 백의 화면이 주는 과거성이 합쳐져 우리는 흑백영화를 보면서 향수에 젖곤 한다. 또한 각자 나름의 삶의 경험으로 축적된 감성으로 흑백화면에서 온갖 색들의 흔적을 느끼기도 한다.

【작품 10】은 본인의 기억 속 미루나무가 있는 풍경 이미지로 과거성이 담긴 흔적을 표현해 내고자 하였다.

오래된 동판의 표면은 의도하지 않은 선들의 무작위적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 선들은 불규칙하고 자유분방하며 자연스럽다. 판에 나타나 있는 선들을 작품에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흑백필름에서 오는 시간성과 과거성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배경으로 보이는 옅은 톤의 이미지는 원경으로써 산을 표현한 것인데 하늘과의 경계선을 스프레이 입자로 불분명하게 표현하고 aquatint기법으로 동일한 톤을 주어 아스라이 멀리 있는 원경과의 공간감을 나타내었다.

### Ⅲ. 결 론

숲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자연에 대한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과 자연에의 회귀를 표현하는 중요한 소재였다. 현대 사회에서 숲은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인간 정신의 근원으로써 도시화된 생활 속에서 지친 심신에 새로운 기운을 북돋아 주는 휴식의 공간으로 존재한다.

본인은 대기의 흐름을 통해 느껴지는 숲의 운율적인 움직임이 갖고 있는 생명감을 표현하려 하였다. 이러한 표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자신만의 감성적 대상을 찾아 그것으로부터 삶의 회복과 자아의 모색을 추구하려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순수한 감성으로의 회귀를 본인의 기억 속 숲 이미지와 오버랩되기를 기대하였다. 서로 다른 시간적, 공간적 경험에서 얻은 감성이 현재 하나의 공감대로 형성되어 소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표현 방법에 있어서 여러 이미지의 중첩으로 나타난 형은 무채색의 다양한 변화로 자연스럽고 생명감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자 함이다. 스프레이를 이용한 실물전사 기법은 여러 이미지들의 외곽을 뚜렷하게 하기도 하고 입자의 퍼지는 효과로 불분명 하게 하기도 하여 자연스러운 느낌이 든다. aquatint 기법으로 이루어진 톤의 다양한 변화는 부드러운 리듬의 형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느낌을 더해준다. 그리하여 생명감 있는 자연스러운 숲의 이미지는 획득한 듯 하지만 반면 손으로 긁거나 깎아 내는 행위를 통한 파격적인 표현과 자연스러운 이미지의 혼형으로 생성되는 더욱 다양한 톤의 변주를 내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비가시적 세계, 즉 감각적 세계에서 오는 감성을

시각적 세계로 이끄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인 듯 하며 좀 더 세밀한 관찰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숲과 주위의 자연에 대한 관찰을 통해 대기의 흐름을 좀 더 감지할 수 있는 구체성의 획득이 필요하고, 실물전사에서 형상을 의지하다 보니 여기에서 형태의 다양성에 대한 한계를 느낀다. 형태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모색으로 때로는 실제 드로잉을 이용한 표현과 다른 오브제를 통한 형상의 산출(産出)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문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본인은 그것이 새로운 작품제작에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이것을 통하여 앞으로 작품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김영숙, 노성두, 류승희, <자연을 사랑한 화가들>, 아트북스, 2005
- 김우창, <풍경과 마음>, 생각의 나무, 2003
- 김윤희, <검은천사 하얀악마>, 시공사, 2005
- E.H콤브리치, <예술과 환영>, 차미레, 열화당, 2003
- E.H콤브리치, <서양미술사>, 백승길,이종승 예경, 2003
- 이우환, <여백의 예술>, 김춘미, 현대문학, 2002
- 김광명, <예술에 대한 사색>, 학연 문화사, 2006
- 루돌프 아른하임,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미진사, 1996
- 강영희, <금빛 기쁨의 기억>, 일빛, 2004
- 전영우, <숲 보기, 읽기, 담기>, 현암사, 2003
- 백기수, <미학>, 서울대출판부, 1978
- 최 민, <기억과 망각>, 문화과학, 2000
- 김인환, <동양 예술론>, 안그라픽스, 2003

# ABSTRACT

## A Study on the Rhythmic Landscape Expression through the Nature in Memory

- Centering around my work -

Lee han chul  
Department of Printmaking  
Graduate School of Art & Desig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is for explaining the work announced in the exhibition to apply for master's degree<The Illusion> out of my works manufactured from 2002 to 2004 and analyzing contents side and plastic side as master's thesis.

Creation of art work is to express, so that spectators may experience same feeling through plastic languages such as line or form and color by arousing memory and looks that artist experienced at one time again. So, all the experiences and looks to be immanent in the consciousness of artist become most suitable and corelike motif to be able to sublimate as art. 'Forest' which is the world that I faced for the first time after I was born is intimate and beloved place, and it is the place to arouse nostalgia to want to return endlessly like the womb inside of mother. In addition, as forest is forming my past, it is my start and root, and it is the place confirm the origin of existence of being 'I'.

I expressed the life sense of invisible feeling which is felt in forest by making memories which are settling in subconsciousness by being experienced in nature to be forest as motif. Image of forest is what appears as the reflection of memory, and form to appear by overlapping is the expression of life sense. Forest is the place to practise inner silence. Then, from the inside, we obtain lively strength and find the stability of mind through speculation as the place of rest. In the flow of atmosphere, life sense draws near as innumerable many tremblings, movements, and wave motion, and it is felt with sensible rhythm. Life nature has invisible character, and it may be felt with the understanding of forest and own inside world, that is, harmonious combination of sensible sensitivity.

I hope that the image of forest enables moderns to be exhausted by busy daily life to feel life sense for the restoration of life and to regain human innate sensitivity through this thesis, and make this thesis the momentum to look back at my work world, and try to help for future work unfolding.